
중앙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

2019. 6.



관계부처합동

<목 차>

I. 추진 배경	1
II. 경제협력 현황평가	2
III. 기본 방향	6
IV. 세부 추진과제	9
1. 산업 협력 다각화	9
2. 교역·투자 확대 플랫폼 구축	19
3. 지원체계 공고화 및 밀착지원	22

I. 추진 배경

-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
 - 對러 제재 국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확대는 한계가 있는바, 중앙아 3국*과의 협력을 가속화하여 신북방 정책 성과 창출 추진

*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투르크메니스탄

- 중앙아 3국은 우리와의 교역·투자 규모는 미미*하나, 최근 안정적 경제성장률을 유지, 對 중앙아 수출이 급증하는 등 잠재력이 큼

* 18년 기준 對 중앙아 3국 교역/투자 규모: 43억불/ 54억불

<중앙아의 가치>

- ▲ 중앙아 3국은 CIS 평균 2%를 상회, 4~6%의 경제성장률 유지 ('18년, IMF)
- ▲ '19.4월 기준 우리의 對 세계 수출은 감소세이나, 對 중앙아 3국 수출은 148% 증가
 - ① 자동차(소형·중형차 중심의 한국산 수요 증가), ②차부품(현지 자동차 생산량 증가 및 보급률 확대), ③ 화학기계(국내 기업의 유전 해양모듈 납품 증가) 증가에 기인
- ▲ 중앙아 3국은 자원중심→산업다각화 정책을 적극 추진중, 한국식 모델을 적극 도입

- 중앙아 정상방문('19.4.16-23)계기 약 128억불 규모 수주지원 등 중앙아 3개국과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고, 강력한 협력의지를 확인

- 순방시 44.5억불 규모 기업간 MOU 체결*이 이루어졌으며, 정상 회담시 82.2억불 발주예정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요청

* ①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 판매사업 (투, 7억불), ②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협력 (우, 6억불) ③ 현대차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(카, 3억불 수출) 등

- 60여개 협정 및 MOU 체결을 통해 ICT, 디지털헬스 케어, 항공 우주 등 우리 기업의 진출범위를 확대하고, 교역·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



정상방문시 조성된 모멘텀을 활용, 중앙아 붐(Boom) 확산을 통해 교역·투자 확대 및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

II. 경제협력 현황평가

기회 vs. 위험

□ (기회 요인) ① 안정적 성장세 유지, ② 산업 다각화

- 중앙아 3국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*으로, 자원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, 최근 유가회복과 함께 안정적 경제성장세

* 경제성장률('18년) : 우즈벡 5.0%, 카자흐 4.1%, 투르크 6.2% (CIS 평균 2%)

- 자원의존 경제구조*를 탈피하고자 제조업과 신산업을 동시 육성하는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중, 합작투자 등을 통한 시장진출 기회

* 제조업 생산비중: 우즈벡 12%, 카자흐 11% (2019, World Development Indicator)

- 중앙아 3국은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, 한국형 산업발전 모델 도입 및 기업투자를 적극 희망하는 등 우호적 협력 여건

< 국가별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현황 >

국가명	주요 내용
우즈베키스탄	▶ '17년 수립한 '2017-2021 우즈벡 향후 발전전략'에 따라 △경제발전과 자유화 (경제현대화, 산업다각화, 외국인투자 유치 등), △대외개방정책 등 추진중 * 산업생산량 .15배, '30년까지 GDP 2배 증대 목표
카자흐스탄	▶ 자원의존형 산업구조의 한계를 실감하여 '카자흐 2050 전략'('12.12월)을 기본으로 제조업육성, 투자유치, 4차 산업혁명(디지털화) 등 추진중 ▶ '디지털 카자흐스탄', '스마트 시티 2.0' 등 정부주도 혁신산업 육성정책 추진중
투르크메니스탄	▶ '19.2.1 발표한 '2019-2025 사회·경제 국가발전계획'에 따라 △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육성 △국영기업 민영화 및 합자회사 전환, △민간·해외 자본 유치 △생산·경영에 첨단 기술 적용 △상품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 추진중

□ (위험 요인) ① 열악한 기업환경 ② 자국산업 보호

- 국가주도의 경제체제로 불합리한 법제도·관행* 존재, 전기·수도·도로 등 부족한 인프라 등으로 기업 활동 및 수출에 애로

* (투르크) 입찰 개요 등 간단한 정보 및 담당자 접근도 어려움, (우즈벡) 가스대금 미지급 등 미수금 문제 (카자흐) 프로젝트 계약 일방적 해지 통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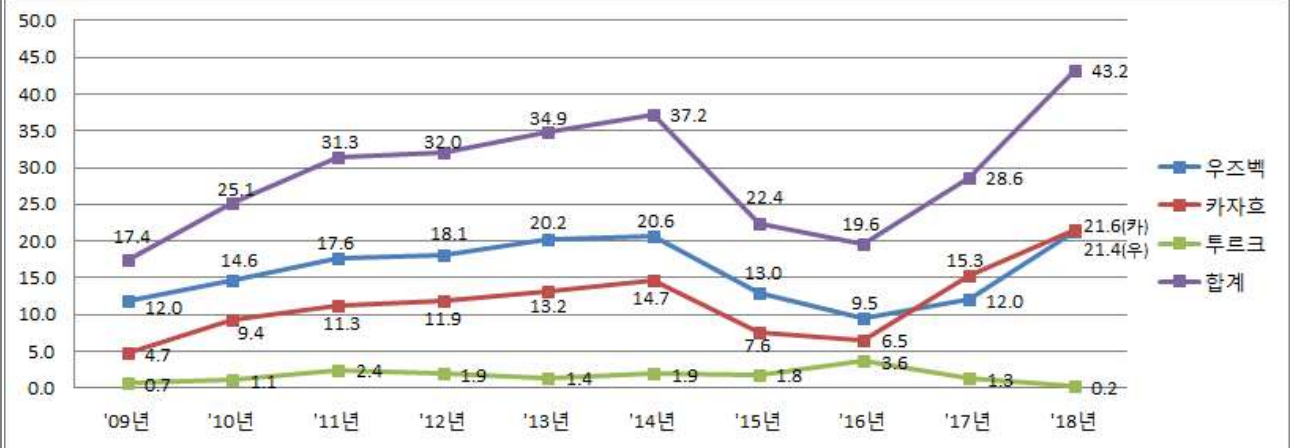
- 제조업 육성 및 수입대체 관점에서 외국산 제품차별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(비관세장벽 등) 시행중

* (우) 자동차, 화장품 등 현지 생산제품 수입시 高관세·소비세 부과 등

참고 : 한-중앙아 3국 교역·투자

- (교역) 중앙아 3국과 교역은 '09-'14년간 증가하여 '14년 37억불 기록, 15년 이후 유가하락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'18년 43억불로 회복

< 對 중앙아 3개국 교역현황('09-18년, 단위:억불) >



- 對 중앙아 3국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부품, 승용차, 화학기계이며, 수입품은 원유, 합금철로 원자재를 수입하고 부품, 완제품을 수출하는 교역구조

- (투자) '09년 4억불 기록 후 감소세로 15년 이후 투자는 1억불 수준

* 18.12월 누계 우리 기업은 중앙아 3국에 54.2억불 투자

< 對 중앙아 3개국 투자현황('09-18년, 단위:백만불) >



- 우즈벡은 자동차 등 제조업, 건설업, 카자흐는 부동산·건설업, 광물제조업, 금융, 투르크는 건설업(플랜트 유관)에 주로 투자진출

국별 협력여건

- (우즈벡) 중앙아 최대 내수시장(인구 32백만)이자 자원부국으로 플랜트 협력 중심이었으나, 개방화, 투자유치를 통한 생산기반 강화 추세
 - (교역·투자) '18년 교역규모 **21억불**, (우리의 수출이 99%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교역구조), 對우 직접투자는 **14.7억불**('18년 누계)
 - * 교역(억불): ('14)21 → ('15)13 → ('16)9 → ('17)12 → ('18)21 → ('19.4)7
 - * (수출품) 자동차부품(39%), 자동차(14%) 등 (수입품) 펄프(43%), 과실류(13%) 등
 - (협력현황) 그간 에너지협력이 활발하였으나 최근 플랜트 수주규모 감소, ODA 중점지원국으로 섬유, 농기계, 의료분야 지원
 - * 수주액(억불, 누계 107억불) : ('13)45.3 → ('14)20.4 → ('15)12.6 → ('16)3.98 → ('17)4.4 → ('18)0.53
 - * EDCF : 10개 사업 309백만불 승인, 교육, 보건분야 등 지원중
 - * ODA : 섬유TP(189억원), 농기계 R&D 센터(66억원) 등의 조성 지원
 - 최근 프로젝트 발주시 투자유도, MDB 활용이 증가하고, WTO 가입 추진 등 개방화, 자동차 등 수출 산업육성, 산업다각화를 적극 추진
 - (시사점) ODA를 활용 농기계, 섬유분야 진출 거점 확보 및 시장 선점이 가능하며, 자동차산업 육성에 따른 부품수출이 유망
- (카자흐) 원유 및 우라늄 등 광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최근 자원의존도를 낮추고 인프라 확충, 제조업 육성 및 산업 다각화 추진
 - (교역·투자) '18년 한국의 중앙아 최대 교역(22억불) 및 투자대상국(40억불), 소득증가, 한류의 영향으로 자동차, 화장품 수출 확대
 - * 對 중앙아 누적투자액('18년) : 1위 카자흐(40억불), 2위 우즈벡(15억불), 3위 키르기스(2억불)
 - * (수출품) 화학기계(34%), 자동차(11%) 등 (수입품) 원유(80%), 합금철(11%) 등
 - (협력현황)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표 경협사업 무산으로 에너지협력은 침체, 분야는 건설, 의료서비스* 등으로 다변화
 - * '17년 방한 카자흐 의료관광객 환자 수 6위(12,566명), 진료수입 4위(432억원)
 - 최근 카자흐는 인프라 개발(누를리 줄)로 건설업이 확대(형식은 PPP 위주) 되고 있으며, 제조업과 디지털 등 첨단산업을 동시 육성중
 - (시사점) 인프라 수요증가에 따른 우리기업의 건설사업 참여, 제조업 육성에 따른 장비·부품수출, 의료분야 진출이 유망

- (투르크) 천연가스 부국으로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등 에너지분야 협력위주에서 최근 제조업 등으로 협력 다변화 모색
- (교역·투자) 국가주도의 폐쇄경제 체제로 인해 교역은 1~3억불 수준, 제조업 등 산업기반이 미비하여 투자도 매우 미미
 - * 교역(억불): ('14)1.9 → ('15)1.8 → ('16)3.6 → ('17)1.3 → ('18)0.2
 - * 한→투 직접투자 규모(18년 누계) : 총 27건 2.1백만불
- (협력분야) 플랜트 수주* 중심 협력, 버스공급(누적 1500대), 섬유 기술지도 및 ODA사업(가스직업훈련원), 등 제한된 분야 협력
 - * 수주 (총18건, 100억불) : 플랜트(97억불), 용역(2억불), 건축 (1억불)
- 투르크 정부는 플랜트 발주형식을 사업자 투자방식으로 변경하고, 플랜트 외에도 수송, 물류, ICT, 제조업(전자) 분야 협력 희망
- (시사점)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에 중점을 두는 한편, 제조업 육성 등 투르크 정부의 경제발전 및 산업화 정책과 연계한 협력 다각화 필요

<협력 현황 및 변화요인>

	협력현황	변화
우즈벡	·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등 100억불 규모 프로젝트 수주 · 섬유, 농기계 등 ODA 지원(중점지원국)	· 플랜트 조달정책 변경(투자유도, MDB) · WTO 가입 추진 등 개방화, 농업, 섬유, 자동차 산업 육성 추진중
카자흐	· 그간 에너지분야 협력위주, 다소 침체 · 건설, 의료, 금융 등 진출 분야 확대	· PPP 형식의 인프라 대규모 프로젝트 · 제조업 및 디지털, 첨단산업 동시 육성
투르크	· 투 최대 가스화학 플랜트인 키안리 플랜트를 우리기업이 완공(EPC수주 건설) · 면섬유 관련 협력, 버스공급, 가스직업 훈련원 건립 등 제한적 협력사업	· 재정악화 요인에 따라 투르크 정부는 사업자 투자 방식으로 정책 변경 · 합성섬유, 수송물류 인프라, ICT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로 협력 확대 희망

▲ 에너지협력 중심에서 산업 다각화 및 자국 산업 육성책 추진

→ 에너지협력만으로는 교역·투자 확대에 한계,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협력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

Ⅲ. 기본 방향

- ▲ 중앙아 3국을 신북방정책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① 산업다각화 수요와 연계한 협력, ② 교역투자 플랫폼 구축, ③ 밀착 지원 추진
- ▲ 빠르게 성장하는 중앙아 3국을 신북방의 베트남으로 육성

1 산업협력 다각화: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 분야 동시 협력

- 중앙아 산업다각화 정책수요에 맞추어 협력분야를 다변화하여,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도모
 - (단기) 섬유, 농기계, 자동차 등 기존 협력을 가속화하여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, 장비, 부품수출 등을 통해 중앙아 진출 기회로 활용
 - 향후에는 중앙아 3국을 신북방의 중앙아 거점으로 삼아 EAEU, CIS FTA를 활용, 유라시아 경제권까지 진출 확대 추진
 - (중장기) 디지털헬스케어, 우주, ICT 등 신산업은 정부간 채널 신설, 협력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업 진출 기반을 조성

2 교역·투자 확대 플랫폼 구축

- 중앙아 3국은 국가주도의 경제체제로 비즈니스 환경은 열악한 수준*,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정부차원의 기반구축이 필요
 - * 신북방 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('19.1월, 산업연구원) : ① 바이어 발굴(26%), ② 현지행정절차, 정부규제(20%), ③ 정보부족(20%)
 - FTA·경제협력 프로그램, 양자협력채널 신설, 무역투자사절단 교류, ODA/EDCF 강화 등 플랫폼 구축 추진

3 지원체계 공고화 및 밀착 지원

- 對 중앙아 비즈니스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기업에 대한 진출전략을 마련하고,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
 - 중앙아 전략회의, 프로젝트 점검회의 신설 및 상시 지원 체계 구축

참고 : 베트남과 중앙아 3국 비교

- 베트남과 중앙아 3국은 성장모델, 높은 경제성장률, 젊은 인구, 역내 경제동맹 보유 측면에서 유사
- 다만, 지리적 접근성, 우리기업의 투자, FTA 등에서 차이가 있어, 現 교역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, 협력 잠재력은 큼

	베트남	중앙아 3국
성장 모델	공산국가에서 정부중심의 개혁개방 추진 한국식 모델 전수 희망	
인구	젊은 인구 중위연령 30.5세(18년)	젊은 인구(3국 평균) 중위연령 29.0세(18년) (우 28.6, 카 30.6, 투 27.9)
경제 성장률 (18년)	7.1	우 5.0, 카 4.1, 투 6.2
역내 경제 동맹	아세안(10개국)	CIS FTA(9개국), EAEU(5개국)
FTA	한-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(07년) 한-베트남 FTA 발효 (15년)	한-EAEU 검토중 (한-러 서비스투자 협상 '19.6월 개시) 한-우즈베크 FTA 공동연구
지리	동남아 거점 위치	러, 동유럽, 서남아 중간지대 위치
교역 투자 (18년)	교역 : 683억불 투자 : 313억불 (누계)	교역 : 43억불 투자 : 54.2억불 (누계)

* 출처 : (기업투자) 한국수출입은행, (중위연령) World Population Review,
(경제성장률) IMF

목표 및 추진과제

목표

**‘23년 對 중앙아 3국 교역규모 100억불
(18년 교역 43억불)**

* 10-14년 연평균증가율 10% (15년 급락 후 18년 기존수준 회복)
/ 19년 이후 20% 증가 가정시



비즈니스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중앙아 붐(Boom) 확산

추진 과제

① 산업협력 다각화

- ① (단기) 제조업 경쟁력 강화
섬유, 농기계, 자동차, 플랜트 · 건설, 희소금속
- ② (중장기) 신산업 협력
의료(제약, 디지털헬스케어), ICT, 우주

② 교역 · 투자 확대 플랫폼 구축

- ① FTA · 경제협력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구축
- ② 양자협력채널 강화
- ③ ODA/EDCF 강화를 통한 전략적 경제협력

③ 지원체계 공고화 및 밀착 지원

- ①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
- ② 프로젝트 점검회의
- ③ 상시 지원체계 강화

IV. 세부 추진과제

1

산업협력 다각화

(단기) 섬유, 농기계, 자동차, 플랜트·건설 등 제조업 협력 강화
(중장기) 의료분야(디지털, 제약포함), ICT, 우주 등 신산업 파트너십 구축

1 (단기) 제조업

가. 섬유

- **(현황)** 우즈벡, 투르크는 풍부한 면화 생산국이나 단순 원자재(원면) 수출로 방적, 염색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및 수출 희망
 - * (우즈벡) 140개 섬유 프로젝트에 23억불 투자(재건개발펀드 활용) 등을 통해 연 25억불 수출 달성 및 일자리 25,000개 이상 창출 추진
 - * (투르크) 천연가스와 함께 가장 중시되는 3대 수출 전략 산업, 현재 40여개 섬유 공장이 가동 중
- **(추진방안)** 우리 섬유기술, 설비와 우즈벡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방적, 염색, 봉제 등 완제품 생산 체제 구축 추진
 - (우즈벡) 타슈켄트에 섬유TP 조성으로 우즈벡의 섬유산업 고도화 지원과 함께 국내 섬유기업의 중앙아 진출 기반 구축('19.下)
 - * 사업기간 : '15~'19, 산업자원 ODA 예산 189.4억원, 현재 공정률 90%
 - * 산업기술대학교는 타슈켄트 섬유대학과 섬유 TP 연계 산업기술 거점사업 진행('19.下)
 - (투르크)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생산물(PE, PP)을 활용한 합성섬유 협력사업 발굴, 섬유 신소재 연구 및 인력양성 추진('19.下)
 - * 합성 섬유 MOU ((韓)생기원-(투)섬유산업부), 염색·가공 MOU ((韓)다이텍-(투)섬유산업부))

나. 농기계

- **(현황)** 우즈베크는 주요 산업인 농업(GDP 28%)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중이며 카자흐도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는 등 중앙아 농기계 시장 지속 확대

* 우즈베크 트랙터 시장은 '07년부터 연평균 약 12.7% 성장, 현 시장규모 약 11억불

- (우즈베크)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품목 다변화(목화→감자, 채소, 종자산업 등), 농기계 관세 면제, 전대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

- 우즈베크의 온실수요 확대 및 한-우즈베크 농기계 R&D 센터 건립에 따라 對우즈베크 농기계 수출이 최근 증가 추세

* 기타농기계 수출(천 달러) : 3,905('15) → 9,420('16) → 59,189('17) → 17,611('18)

- (카자흐) '카자흐 2050 경제발전전략'의 농업 현대화에 따라 농업 관련 IT 기기나 첨단 농기계에 대한 투자, 보조금 지원 확대 예상

- **(추진방안)** 우즈베크 농기계 R&D센터* 조성 및 카자흐 스마트팜 기술 수출로 중앙아 농기계 시장진출 거점 확보 및 농기계 수출 확대

* '16~19년 총 66억원 ODA 사업(19.4월 개소), KIAT - 우즈베크 농기계공사 주관

- (우즈베크) 우리 중소·중견 기업의 농기계 범용기술 및 부품을 활용한 양국 합작생산 및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

* '17~'19년 우즈베크는 한국과 합작하여 투르크에 면화수확기 1천대(약 3천만불)를 수출하고, 우리 중소기업(한우공영)은 우즈베크에 동 수출용 핵심부품 약 136억원 수출

- (카자흐) 농업기술 및 기자재 패키지의 카자흐 수출을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* 시연회 및 수출상담('19.10월, 알마티) 추진

* 설비, 농자재, 품종(딸기, 오이, 토마토 등)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로 카자흐 內 테스트베드 사업 진행중 ('18.3~'19.12월)

다. 자동차

□ **(현황)** 중앙아 3국의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자동차 협력이 활발

○ (우즈벡) 중앙아 유일의 완성차 생산기업(GM우즈 등) 보유국으로 자동차산업 5개년 발전 계획*(2017~2021)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중

* 21년까지 8.3억불 규모 51개 프로젝트 이행목표 (신차개발 7개(4.3억불), 설비현대화 9개 (1.6억불), 부품국산화 35개(2.4억불)) 및 생산량 확대('16) 연 8만대 → ('21) 연 24만대

- 대우차 후신인 GM 우즈는 한국산 부품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, 생산량 증가와 함께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수출이 증가

* '18년 자동차부품 수출은 48.2% 증가한 8억불 우즈벡 자동차부품 수입액의 약 90% 차지

○ (카자흐) 자동차 판매량은 성장세*로 해외 브랜드의 카자흐 조립 생산차의 비중 증가 경향, 한국 브랜드 시장점유율도 확대중**

* 판매량(대) : ('16) 43,845 → ('17) 46,377 → ('18) 57,919

** '18년 판매순위 : 1위 Lada(露), 2위 Toyota(日), 3위 Hyundai(韓), 4위 KIA(韓)

○ (투르크) 자동차 제조공장이 없으나,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버스·택시 구매 및 버스터미널, 차고지, 운전연습센터 건설 계획

* 현대종합상사는 투르크에 '08년부터 총 1,500대 버스타кси를 공급

□ **(추진방안)** 우즈벡, 카자흐는 부품·완성차 수출확대, 투르크는 수송분야 프로젝트 참여를 중심으로 접근

○ (우즈벡) 양국 컨소시엄이 설립한 상용차 조립공장*(19.4월 착공, 나망간)에 우리 부품 공급 확대 및 GM 우즈 미수금(53백만불, 워킹그룹 의제) 해소 추진

* 나망간주-에버그린모터스-현대종합상사 컨소시엄은 버스·트럭 등 상용차 부품을 한국에서 도입, 현지조립방식으로 年 1,200대 생산('20.上 생산 예정) 협의중

○ (카자흐) '19.5월 착공한 현대차 조립공장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우리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

* 아스타나 모터스- 현대차 MOU체결('19.4.22일) → 착공('19.5월) → 완공('20.말) → 양산('21.5월), 연간 1.5만대 생산(현대차 부품 약 3억불 수출) 효과

○ (투르크) 버스·택시 공급 및 버스터미널 건축 등 투르크 정부가 추진하는 수송분야 사업에 우리 기업* 참여 지원

* '19.4월 투 정부-현대종합상사 버스·택시공급 및 터미널 건설 등 협력 MOU 체결

라. 플랜트 · 건설

- **(현황)** 對중앙아 인프라 수주는 저유가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로 정체이나 이들 국가들의 산업화 추진으로 반등 예상('18 누계 : 322억불)

* 국가별 수주액(해외건설협회: 누계, 억불) : 카자흐 115, 우즈베크 107, 튀르키예 100

* 연도별 수주액(억불) : ('14) 27 → ('15) 56 → ('16) 6 → ('17) 6 → ('18) 4

- **(우즈베크)** 천연가스 활용 고부가가치 플랜트, 노후 발전소 및 송전망 개보수 등의 프로젝트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

* 노후 집중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현대화 및 국가 전력계통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사업 (1.5억불), 카라칼파크스탄 지역 배전망 현대화 (2억불) 등

- **(카자흐)** 국가인프라 개발프로그램 「누를리 줄 新경제정책」의 일환으로 '15~'19년간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

* ①운송·물류 인프라, ②산업 인프라, ③에너지 인프라, ④주거환경(난방·수도 등), ⑤주택 공급, ⑥사회 인프라, ⑦중소기업 등 총 7개 분야

- **(튀르키예)**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고부가가치 가스화학 산업으로 전환, 가스수출 다변화, 산업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

* 튀르키예 국가발전전략 (2011-2030 사회·경제 발전 프로그램) :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대형프로젝트 실현 가속화, 사회복지환경 개선 적극투자 등

- **(추진 방안)** 중앙아 인프라 시장변화(단순도급 → 투자개발형(PPP 등)) 대응과 우리기업 수주경쟁력 지원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

- **(사업개발)** KIND와 우리 기업의 “Team Korea” 협력체계 구축 및 PPP(민관협력사업) 추진, MDB 등과 연계한 공동 사업 개발

- **(금융)** 무보·수은 등 수출신용기관(ECA)의 정책금융 규모를 지속 확충* 하고, 심사기간 단축 및 서류간소화** 등 추진

* (무보) 해외 프로젝트 지원 : ('18년) 9.275조원 → ('19년 목표) 9.4조원

(수은) 건설플랜트 지원 : ('18년) 9.8조원 → ('19년 목표) 12조원

** 검토기간 단축, 제출 서류(EPC, O&M 계약서 10종, 금융 서류 10종)도 최소화

- (수주지원 시스템) 對중앙아 위킹그룹 신설, 고위급 협력채널 및 상시지원체계 등을 통해 수주지원 및 애로해소 추진
 - ‘기업·상무관·지역담당관’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*는 최종 수주까지 프로젝트 단계별 상시 지원체제 유지
 - * (우즈벡) MTO 설비를 통한 고무, 폴리머 생산설비 건설 (35억불) (카자흐) 파블로 다르 합금철 플랜트(2억불) (투르크) 윤활유 생산공정 현대화 (3.2억불)
 - 「중앙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」 (타슈켄트, '19.3월 설치)를 활용한 정보 발굴 강화 및 ‘프로젝트 정보은행*’을 통해 업계에 전파·공유
 - * 프로젝트 정보은행('18.5월 개설, 플랜트산업협회) : <http://pib.kopia.or.kr>
- (공동 진출) 기업(개발+운영), 플랜트·건설사(엔지니어링+시공), 현지 기업(시공)이 공동 참여하는 동반 진출 적극 모색
 - * 우즈벡 수르길 가스화학플랜트(36억불) : 가스공사(운영), 현대ENG-GS건설(건설), 무보·수은(금융) 등이 참여한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·운영 중

마. 희소금속

- (현황) 우즈벡은 텅스텐, 몰리브덴, 리튬 등 희소금속 자원이 풍부*하나, 부품화를 위한 응용기술, 인력, 장비는 부족
 - * 몰리브덴 매장량 10위(생산량 12위)
- 우리는 희소금속 다소비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희소금속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공급처 확보가 필요
- (추진 방안) 한-우 희소금속협력센터를 활용 중국 위주인 텅스텐, 몰리브덴 공급 다변화, 희소금속 가공장비의 중앙아시아 진출 추진
 - (우즈벡) 희소금속 센터를 통해 우측에 IT 종합 솔루션 구축, 기술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, 우리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
 - * 주관기관 : 생산기술연구원 - 우즈벡 알말릭광업공사, 19.4월 개소
 - * 우리기업이 추진하는 텅스텐 개발 프로젝트('21년 생산 예정) 지원 예정

2 (중장기) 신산업 협력

가. 의료분야 [의료 · 제약 · 디지털헬스케어]

- **(현황)** 중앙아 3국은 의료기반이 취약하여 의료 현대화를 적극 추진중이며,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에 관심
 - **(우즈벡)** 영토, 인구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, 보건의료 전반 개혁 추진중, 우리와는 아동병원 건설 등 ODA 지원, 한국 보건전문관 채용 등 협력 강화
 - **(카자흐)** 방한 카자흐 의료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세브란스 병원 사후관리 센터가 진출하는 등 민간 중심 진출이 활발
 - **(투르크)** 대규모 투자로 병원 건물, 장비는 우수하나, 의료진 부족 및 역량 미흡으로 보건의료 지표에서 세계 평균에 크게 미달, 한국과 협력 희망

* '19.4월 양국 보건부간 의료인력 교류, 제약, 의료기기 협력을 위한 이행 계획체결

- **(추진방안)** 우즈벡과는 보건의료협력센터, 카자흐 투르크와는 보건의료 워킹그룹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, 제약 등 포괄적 협력 추진
 - **(우즈벡)** 보건의료 협력센터 운영, 보건산업박람회 사절단 파견, 제약, 디지털헬스케어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추진
 - **(협력센터)** 우즈벡 보건의료 분야 개혁*을 위한 정책연구 및 컨설팅과 기타 양국 보건의료분야 협력 활동 수행('19~'22)

* ('19년계획) △건강보험제도 도입 연구, △보건의료분야 PPP(Public Private Partnership) 강화 방안 연구, △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

- **(디지털헬스케어)** 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행동 계획 채택 및 포럼* 공동 개최, 원격협진 관련 ODA** 지원 추진

* 디지털 헬스케어 동향 소개 및 빅데이터·병원정보시스템 등 우수분야 홍보('19.9월)

** 우즈벡 원격협진 관련 ODA 기획 추진 예정 ('19.6월~)

- (제약) 의약품 교역과 투자 활성화 제도 마련, 한국 제약기업 전용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양국 제약분야 워킹그룹 운영
 - * '20년 상반기 중 양국 간 협약체결을 위한 문건 초안 마련 및 협의 추진
- (사절단 파견) '2019 메디컬코리아 박람회'와 연계해 의료기관·제약·의료기기 민관사절단을 파견하여 맞춤형 1:1 B2B 미팅 실시('19.9.)
- (카자흐) 정부간 보건의료 워킹그룹 운영, 건강보험정보 시스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, 민간 병원의 카자흐 진출 지원
 - (워킹그룹 운영) 양국 보건의료 이해도 제고와 양국간 협력사업 발굴 및 현지시장 진출 플랫폼 역할 수행 ('19~'21, 총5회 실시)
 - * '19.9월 카자흐 1차회의 개최 / (분야) ①의약품, ②의료기기, ③eHealth, ④의료서비스
 - (건강보험 연수) 카작 건강보험 정책결정자 초청 연수* 및 '건강보험정보관리시스템' 수출 실무협의
 - *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, '19.6.24-29일 카 보건부 차관 및 건강보험기금 이사장 등 참여
 - (민간진출지원) 대학병원 설립, 치과병원, 공공병원 인수 펀드조성 등 민간 병원의 카자흐 진출을 적극 지원
 - * 카라간다 대학병원(300병상 규모) 건설(1.7억불), 누르술탄 치과병원 공동개소 (0.06억불) 등
- (투르크) 보건의료 워킹그룹을 운영하고, 현지 보건산업박람회 내 한국관 운영, e-Health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
 - (워킹그룹 운영) 양국 보건의료 이해도 제고와 양국간 협력사업 발굴 및 현지시장 진출 플랫폼 역할 수행 ('19~'21, 총5회 실시)
 - * '19.7월 투르크 1차회의 개최 / (분야) ①의약품, ②의료기기, ③eHealth, ④의료서비스
 - (보건산업박람회 참가)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 및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기회 제공('19.7.20~22.)
 - * 투르크 국제 보건산업박람회 '2019 Saglyk(건강)' 내 한국관 운영
 - (eHealth) 투르크의 eHealth 수요 파악 및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eHealth 마스터플랜 공동 수립('19~'20)

나. ICT

□ **(현황)** 중앙아 3국은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ICT 분야에 정책적 관심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적극적

- **(투르크)** '2019-2025 디지털 경제개발 콘셉트'('18년)*를 발표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경제와 공공분야 기능 효율성 향상을 추진

<2019-2025 디지털 경제개발 콘셉트 주요내용>

- ① 1단계('19년): 관련 조직 설립·디지털 경제전환 로드맵 개발 등
- ② 2단계('20~'23): 광범위 디지털 통신 시스템·디지털 보고체계 도입 등
- ③ 3단계('24~'25): 국제 디지털 경제 시스템과 통합,
- ④ 기타 : 3G·4G·5G 등 서비스 개설·원격진료 등 도입

- **(우즈벡)** '2015-2019 현대화·다각화 프로그램' 등 정책을 통해 산업다각화, 민간부문 강화 등을 목표로 ICT 인프라 육성 추진

- **(카자흐)** '디지털 카자흐스탄'을 통해 지능형교통시스템, 디지털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투자, ICT 기술 확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

□ **(추진방안)** IT 센터 설립, 초청연수 등을 통해 중앙아 3국의 ICT 역량 제고 및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

- **(투르크·우즈벡)** 정보접근센터 설립(IAC)*, ICT 정책 담당자 초청 연수 등 양국 간 ICT 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ICT 수출 가능성 제고

* (투르크) Internet Access Center : 인터넷 라운지·교육실 등 지원, '21년 구축 목표

* (우즈벡) 現 외교부 심사 중, '20년 구축 목표

- **(카자흐)** 국제 IT 협력센터* 설립을 통해 ICT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, ICT 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의 유라시아 진출 거점으로 활용

* '20~'22년 (3년) / (한) 100만불 지원 - (카) 사무공간, 운영경비 등 현물 지원

다. 우주

□ **(현황)** 중앙아 3국은 위성 개발 등 관련 우주 계획을 마련 중이며, 기술 이전·인력 양성 등을 위해 **외국과의 협력 추진**

○ **(투르크)** '15년 프랑스 협업으로 개발한 통신위성 1기를 보유하고 있으며, 최근 신규 원격탐사 위성 개발계획*을 추진 중

* 위성 제작·발사, 인프라 구축, 관련 인력교육 및 R&D 등에 7년간('18~'24), 약 372백만달러 투자 예정

○ **(우즈베크)** 우즈베크 정부는 우주청 재설립을 추진(법안 계류 중)하는 등 관련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중*

* 직수신 등을 통한 지구관측 위성데이터 활용, 관련 인력 양성 및 해외투자 유치 추진

○ **(카자흐)** 러, 프 등과의 협업으로 통신위성 3기와 지구관측위성 2기를 개발하였고, 지구관측 후속위성 2기 개발을 추진 중

□ **(추진 방안)** 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우리기업의 우주산업 진출 지원

○ **(투르크)** 경제공동위 및 비즈니스 협의회를 등을 통해 지구관측위성 개발 사업*에 국내기업 진출 지원

* 우리기업은 (투)관측위성 공급사업에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('19.4월)

○ **(우즈베크·카자흐)** 우주협력 MOU 체결('19.4월) 등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위성 등 조달사업에 우리 기업 진출 지원

* (우) 중장기/실무관점에서 우리나라 다목적실용위성 영상 직수신국 설치 등 검토 중

* (카) '19년 하반기 중해상도와 '20년 고해상도 위성 사업 공고 추진이 예상

참 고 : 중앙아 3국과 중점 협력 분야

	우즈벡	카자흐	투르크
제조업	섬유 (섬유TP 조성) 농기계 (농기계 R&D 센터) 자동차 (조립공장 설립, 미수금 해소) 플랜트 · 건설 MTO 프로젝트 (35억불) 희소금속 (희소금속 센터)	농기계 (스마트팜 수출) 자동차 (조립공장 설립) 플랜트 · 건설 파블로다르 합금철 플랜트 (2억불)	섬유 (합성섬유 협력사업) 자동차 (버스공급, 터미널구축) 플랜트 · 건설 윤활유 생산공정 현대화 (3.2억불)
신산업	의료 (보건의료협력센터, 디지털헬스케어 ODA) ICT (정보접근센터)	의료 (보건의료워킹그룹운영 민간진출 지원) ICT (국제 IT 협력센터) 우주 (위성사업 진출 지원)	의료 (보건의료워킹그룹운영, e-Health 마스터플랜) ICT (정보접근 센터 설립) 우주 (위성사업 진출 지원)

1 FTA · 경제협력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 구축

1 FTA

- 중앙아 교두보 확보를 위해 '19년 한-우즈벡 FTA 공동연구 추진*

* 한-우즈베키스탄 FTA 추진을 위해 우리측 연구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우즈베크측에 통보한 이후 공동연구(1년 예정) 개시('19.下)

- 한-러 FTA 서비스협상 개시('19.6월) 후 상품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한-EAEU* FTA 협상으로 확대 추진

* Eurasian Economic Union :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, 키르기스공화국, 아르메니아 5개국 경제공동체, 한-EAEU FTA 실무작업반 운영 ('18.11월 5차)

2 경제협력 프로그램

- 「한-카자흐 신규협력 프로그램(Fresh Wind)」 프로젝트 수요조사* 및 실무협의를 진행('19.下)하고, 경제공동위('20) 계기 이행 점검

* 총 10개 분야 58개 프로젝트(무역·경제·중소기업, 산업·자원·에너지, 원자력, 혁신·기술·ICT, 교통·인프라·물류, 건설·주택, 농림·임업, 금융, 보건·의료, 문화·관광·교육)

- 「한-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프로그램」의 분야*별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협력사업을 이행하고, 경제공동위('20) 계기 이행 점검

* 에너지·산업, 교통·통신, 재정·금융, 섬유, 건설·건축·건설자재, 방송·영화, 스포츠, 기타

3 표준협력

- 한-투르크 표준화 MOU 개정 및 협력 범위 확장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 지원 및 국제 표준화기구 내 우호세력 확보

* '19.4월 '적합성평가 및 기술규제' 분야를 추가하는 개정 MOU 체결

* '19년 하반기 한-투르크 표준협력 계획 수립, 20년 투르크 표준 관계자 초청 교육

② 양자 협력채널 강화

① 「한-우즈베키스탄 무역 경제협력 공동위」 워킹그룹 신설

- 정상방문 후속조치로 우즈베크측 제안 사업 검토 및 우리측 관심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워킹그룹* 개최 (6.20일)

* (우리측) 산업부 통상차관보(수석대표), 관계부처 과장, 유관기관 본부장급

* (우즈베크측) 투자대외무역부 장관(수석대표), 관계부처 차관, 유관기관 대표

- 워킹그룹 논의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매년 개최되는 장관급 무역 경제협력 공동위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추가 논의 추진

② 「한-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」 워킹그룹 신설

- 한-카자흐 공동위 산하 워킹그룹*을 신설(7.3일 잠정), 우리기업의 對 카자흐 프로젝트 지원 등 협의하고, 장관급 공동위 기능을 강화

* (우리측) 산업부 통상차관보(수석대표), 관계부처 과장, 유관기관 본부장급

* (카자흐측) 산업인프라개발부 차관(수석대표), 관계부처 과장, 유관기관 대표

③ 「한-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협의회」 신설

- 한-투르크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(한)무역협회-(투)상공회의소간 설립 MOU 체결 및 1차 회의 개최 (7월말 잠정)

* (한)무역협회-(투)상공회의소 중심으로 관계부처·유관기관·협회·기업 등으로 구성

* 분과(안) : ① 에너지, ② 물·환경, ③ 교통, ④ 산업

④ 무역투자 사절단 셔틀 교류

- 對 중앙아 현지시장 진출 확대와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중앙아 3개국과 무역·투자 사절단 셔틀 교류 추진

- '19.6~7월 중앙아 3개국과 실무회의 계기 상대국 무역투자 사절단이 방한하여 프로젝트 상담회 등 개최 (서울)

- '19.9월 한-우 공동위 워킹그룹(차관보), 섬유 TP 개소식(9월)과 연계 구매 사절단, 시장개척단, 투자상담회 개최* (우즈베크, 카자흐)

* 차관보(수석대표), KOTRA, 수입업협회, 생산기술연구원(섬유TP), 관련기업 등

3 ODA/EDCF 강화를 통한 전략적 경제협력 추진

1 ODA

- ODA를 활용하여 중앙아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정부간 합의사항 추진 및 신북방정책 구현의 실질적 지원 강화

* 우즈벡 전자무역플랫폼('19-'22, 68억원),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사업 발굴('19. 기획) 등

- ODA 사업의 전략적·효율적 시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「산업·에너지 ODA 마스터플랜」 수립 추진 ('19.12월)

* 한국형 ODA 추진모델 수립 및 신북방 정책과 연관된 ODA 브랜드 사업 개발 등

- 국제기구·타부처 연계사업(융합ODA)을 신규 발굴하고 기존 연계 사업의 지속관리를 통한 성과 확산

* (국제기구 협력) 세계은행, ADB 등 국제기구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방안 협의

** (융합사업) ①우즈벡 섬유TP(외교부), ②우즈벡 농기계R&D센터(농진청) 등

2 EDCF

- 신북방정책 기조에 맞춰 CIS 지역의 EDCF 지원 규모를 점진 확대 하고, 신북방 지역 EDCF 지원 대상을 다변화

* CIS 등 신북방지역에 16-18년 0.5조원 → 19-21년 0.7조원으로 확대

- (우즈벡) 중점 지원국으로 양국 간 EDCF 기본약정(F/A)*('18~'20년 간 총 5억불 한도) 이행을 위한 후보사업 지원 논의 중

* Framework Arrangement : EDCF 지원기간과 한도 등을 사전 약정 ('17.11월 한-우즈벡 정상회담 계기 체결)

- 우즈벡측과 협의를 통해 F/A 규모 등을 감안, 사업을 선별·지원하여 EDCF를 통한 對 우즈벡 경제협력 관계 강화 추진

- (카자흐, 투르크) 플랜트, 건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비구속성 사업을 시범추진, EDPF**와의 연계 가능성 협의

* 경험증진자금 :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금리보다 낮은 저양허성 차관으로 수원국에 자금을 지원, 지원금리간 차는 정부재원으로 보전

1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(반기)

- 민관합동으로 중앙아 경제협력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, 향후 진출 전략을 논의 하는 장을 마련 (반기/연1회)

- * (구성) 산업부장관-무역협회장 공동위원장, 관계부처, 유관기관, 협단체, 연구원
- * 舊 중앙아 민관경제협력위원회를 재조정 (민간참여 확대, 국가별→ 업종중심), 금년은 반기 개최하고, 내년부터는 연1회 개최

2 프로젝트 점검회의 (creative solution group) (분기)

-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중앙아 프로젝트를 분기별로 점검하고, 수주지원, 금융 등 애로 관련 창의적 해결 방안 모색

- * 업계·전문가·관계부처·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융조달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고, 해결책 모색 및 상대국 협의 추진

<기업애로 및 해결책(안)>

- ① (현지고용비율) 외국기업은 현지인 90% 의무고용 ⇒ 대규모 프로젝트 예외 요구
- ② (지사설립) 투르크 관계기관과의 계약 필수 ⇒ 지사설립 절차, 기준 간소화 필요
- ③ (금융조달) 상업성 있는 사업에 EDCF 요구 ⇒ 적용 가능한 EDPF 대안 제시

3 상시 지원체계 및 정보제공 강화

- 중앙아 진출 애로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상시 기업애로를 파악하고, 그 내용을 양자간 협력채널 등을 통해 해소하는 시스템 구축

- * (우즈벡)대한상의, (투르크, 카자흐) 무역협회가 기업애로를 파악하고, 분기별 프로젝트 점검회의에 그 내용을 상정하여 해소방안 논의

- 신북방 정책에 전문가 의견, 기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신북방 정책 포럼(KIEP)을 개최하고,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 추진